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사막과 낙월사이

김영문 브루노 신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뜨겁지 않고
 그 무엇도 차갑지 않다

눈을 떠도 감아도 오직 나이다
 비로소 혼자이고
 거친 호흡이 남아 있다
 고독한 그림자 곁에 있다

사막은 그저 참고 가는 곳
 가

(44.3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1/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5,580

현재 참가 인원 -100명



본당 설립 50주년 기금 모금 현황

(1/4/26 집계)

손윤자 모니카, 이재원 알비노, 베드로회,
 익명(2명) 모금 총액: \$987.00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삼위일체 신비의 정통 신앙을 옹호한 힐라리오



성 힐라리우스(Hilarius, 또는 힐라리오)의 생애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서 성 예로니모(Hieronymus, 9월 30일)의 “명인록”(De viris illustribus)에 언급된 그의 작품들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르면 성 힐라리오는 310~320년 사이에 프랑스 중서부 푸아티에의 이교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철학과 수사학 등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푸아티에에서 고위 관리가 된 듯하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결혼했으나 그의 아내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는 결혼 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는데, 그 이유를 쾌락 생활의 한계와 철학자들의 모순에 환멸을 느끼던 중 자신이 갈구하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성경 안에서 찾았다고 한 저서에서 밝혔다. 그는 성경 안에서 사람이 되신 말씀을 알게 되었고, 사도 성 바오로(Paulus)의 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뒤늦게 세례사를 받았다. 그는 세례를 받은 뒤에 가족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했고, 푸아티에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350년경 푸아티에의 주교가 선종하자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성 힐라리오를 후임 주교로 선출하였다. 그는 더는 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향 푸아티에의 주교로 축성되었고, 아내 또한 그를 떠나 금욕 생활에 들어갔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334년에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의 성 아타나시오(Athanasius, 5월 2일) 주교가 아리우스파의 압력으로 트리어(Trier)로 추방되고, 337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사망한 후 아리우스 논쟁은 더욱 확산하여 제국의 절반이 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 힐라리오는 공개적으로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갈리아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결국 성 힐라리오는 356년 아리우스파가 주도한 베지에(Beziers) 교회 회의에서 단죄되었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아리우스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던 서로마 제국의 콘스탄티우스 2세 황제(337~361년 재위)에 의해 오늘날 튀르

키에에 속한 소아시아 중서부 지역인 프리기아(Phrygia)로 추방되었다.

그런데 4년에 걸친 성 힐라리오의 유배 생활은 오히려 그가 문화적·신학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서방 교회의 주교로서 동방 교회에 머물며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학 논쟁, 특히 아리우스 논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는 유배 중에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그는 갈리아 지역의 주교들과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고, 그리스어로 기록된 저술가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자신의 영성과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을 준 오리게네스(Origenes)의 신학을 받아들였다. 성 힐라리오가 푸아티에의 주교직에 복귀하지 않는 조건으로 갈리아로 돌아왔을 때, 콘스탄티우스 2세 황제가 사망하고 아리우스 논쟁에서 중립을 유지하던 배교자 율리아누스(361~363년 재위)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였다. 새로운 환경에서 성 힐라리오는 자신의 신학적 노선을 추구할 수 있었고, 갈리아 지역과 북이탈리아 지역에서 아리우스주의를 청산하고 정통 교리를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의 저서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유배 중에 집필한 『삼위일체론』(De Trinitate)이다. 12권으로 된 이 책에서 그는 삼위일체 논쟁에서 성부수난설(聖父受難說)을 주장한 사벨리우스주의(Sabellianism)나 아리우스주의(Arianism)에 반대하는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삼위일체론』은 아리우스주의와 벌인 논쟁에서 동방과 서방의 신학을 결합한 서방 교회 최초의 작품이다. 성 힐라리오는 생애 말기에 신학 작품 외에도 전례에 찬가를 도입하였고, 그의 제자이자 후에 투르(Tours)의 주교가 된 성 마르티노(Martinus, 11월 11일)와 함께 갈리아 지방에서 수도원 제도를 장려하였다. 그는 또한 성경 주석 작품으로 「마태오 복음 주석」과 「시편 주석」도 저술하였다. 그는 367년 또는 368년 11월 1일 또는 1월 13일에 선종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연도나 날짜를 알 수는 없다. 그

에 대한 마지막 역사적 사건이 367년에 있었기에 대체로 367년에 선종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오래된 순교록에 두 날짜가 모두 나오기에 둘 중 하나는 유해를 이장한 날로 추정하고 있다. 히포(Hippo)의 성 아우구스티노(Augustinus, 8월 28일)는 그를 ‘교회의 빛나는 교사’요 ‘이단에 맞선 진리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라고 칭송하였다. 성 예로니모는 그를 ‘매우 웅변적인 사람’이자 ‘교회의 큰 보물’이라고 했다. 라틴 교부의 한 명이자 ‘서방 교회의 아타나시오’로 불리는 성 힐라리오는 1851년 5월 13일 교황 비오 9세(Pius IX)에 의해 교회학자로 선포되었다.

옛 「로마 순교록」은 1월 13일 목록에서 프랑스 푸아티에의 주교이자 증거자인 성 힐라리오가 선종했는데, 그는 용감하게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다가 4년간 프리기아로 추방당하였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을 행했으며,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다고 소개하며 그의 축일을 1월 14일에 기념한다고 전해주었다. 1969년 로마 보편 전례력 개정 이전까지 그의 축일을 1월 14일에 기념했었는데, 이는 1월 6일에 기념하는 주님 공현 축일(한국 교회에서는 1월 2~8일 사이에 오는 주일에 지낸다) 8일 축제 마지막 날(13일)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2001년 개정 발행되어 2004년 일부 수정 및 추가한 「로마 순교록」은 전례력 개정 정신에 따라 그의 축일을 1월 13일로 옮기고, 주교이자 교회학자인 성 힐라리오가 아리우스 이단의 추종자였던 콘스탄티우스 2세 황제 치하에서 푸아티에의 주교가 되었고, 자신의 저서를 통해 삼위일체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니케아 공의회를 신앙을 강력히 옹호했으며, 그로 인해 4년간 프리기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시편과 마태오 복음에 대한 유명한 주석서를 집필했다고 언급하였다.

공지 사항

1 시노드 개막 미사/오리엔테이션

① 시노드 개막 미사

● 일시 : 1/25(주일) 10시 미사
모든 시노드 참가자들은 시노드 개막 미사 30분 전에(9:30)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오리엔테이션

● 일시 : 1/25(주일) 오후 1시 성전
시노드 참가자들은 각 소그룹별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진성사 안내

2026년 5/31(주일)에 견진성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깊이 연결된 아주 중요한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않은 모든 신자들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 : 2026년 1월 25까지

3 특별 헌금(Church in Latin America)

● 일시 : 1/17(토), 1/18(주일)
시애틀 대교구에서 라틴 아메리카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1/18(주일) 오전 8시 미사 후
● 장소 : 110호 교리실
70대 모임인 베드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지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2/18) '재의 예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하여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2/15(주일)까지 성당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6 설(구정) 합동 위령 미사 안내

● 일시 : 2/15(주일) 10시 미사
설 합동 위령 미사 예물 신청은 2/8(주일)까지 미리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교무금 납입 증명서 발급

2025년도 교무금 납입 증명서를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가족등록서에 등록된 이메일로 1월 말에서 2월 초 기간에 세금 보고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8 구역장 회의

● 일시 : 1/18(주일) 오전 11:30
● 장소 : 110호 교리실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임마누엘회 모임

● 일시 : 1/24(토) 오후 5시
● 장소 : 101호 교리실
50대 모임인 임마누엘회의 신년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새 회원분들의 참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 2027 세계 청년대회(WYD) 신청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전 세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더욱 깊이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석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참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한하여 최종 신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관심자 신청서 마감일 : 2026년 2월 1일
- 신청서 파일 및 기타 문의 :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11 글로벌 성가대원 모집

전례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시는 분.

- 대 상 : 모든 신자
- 연락처 : 장 릴리안 206-719-2063
오 마리아 425-876-8593

입당송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49,3,5-6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화답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2독서 1 코린 1,1-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려기를 빕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29-34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 세례 축일(1/11)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8명	61명	228명	170명	51명	558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39	예물 준비 성가 : 217, 340	성체 성가 : 153, 168	파견 성가 : 46
-------	------------	---------------------	------------------	------------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윅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옥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패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터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풀락 (떡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c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1/29/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2/21/26)

2026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공동 담화문 (2026년 1월 18-25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에페4,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맞아,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올해 전 세계 교회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불씨를 지켜온 동방 정교회의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의 깊은 영성과 마주합니다. 301년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역사의 굴곡 속에서 수많은 외침과 집단 학살이라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십자가의 신앙’을 부활의 증거로 삼아온 그들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는 독창적인 전례와 신학적 전통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개신교와 폭넓게 대화하며 ‘다양성 안의 일치’를 실천해온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유산을 ‘배타적 장벽’이 아닌 ‘풍요로운 선물’로 삼아 세계 교회와 소통해왔습니다. 또한 아르메니아 교회는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아픔과 소비에트 무신론 체제하의 억압 속에서도, 제도의 힘이 아닌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희망을 간직하게 해주는 ‘지성소’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그리고 정교회는 2014년에 창립한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를 통해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며 화합과 일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교훈을 따라 서로 다른 전통과 역사를 넘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의 희망’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할 소명을 일깨우고자 합니

다.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고, 성령께서 각 교파에 허락하신 고유한 은사를 존중하며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에페 4,12)에 함께 할 것임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 사회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이념과 가치관의 양극화로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마저도 정체기를 맞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일치의 동력은 외적 제도보다 시련 속에서 단련된 ‘영성’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만남을 넘어, 삶의 고통과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영적 우정’을 쌓아야 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아르메니아 교회의 영성을 본받아, 우리도 교파의 울타리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영적 일치’와 ‘우정의 에큐메니즘’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에페 4,4)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와 위기에도 그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정의와 교육, 자선 사업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하나의 희망’의 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일치는 “세상이 믿게 하려는”(요한 17,21) 선교적 과제이며,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혐오와 배제가 있는 곳에 환대와 사랑의 식탁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본보기가 되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화해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

을 깨달아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창조 세계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태적 회심을 통해 ‘녹색 순교’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소명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사랑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르메니아 교회가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위하여 빛에서 나신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했듯이, 우리도 세상의 분열 속에서 일치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일치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희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세상의 생명을 위해 함께 걷는 일치의 순례자가 됩시다. 이로써 한국 교회가 일치를 통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와 온 세상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 1월 18일

한국천주교회	이 용훈 의장 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 승렬 총무
한국정교회	조 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정 훈 총 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황 규 진 감독
한국기독교장로회	이 종 화 총회장
한국구세군군국	김 병 윤 사령관
대한성공회	박 동 신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윤 창 섭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우 시 흥 전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	원 종 호 총회장